

■ 21세기 새로운 경제 현상 분석론

- 새로운 방법의 대두 배경

- (기존 방법의 한계 인식) 현실 경제의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법은 지나치게 모형의 단순화를 강조해 현상 설명과 미래 예측에서 한계를 보임
- (새로운 경제 현상의 출현) 기존의 방법이 산업사회의 분석에는 유용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 혁신과 경제 구조의 글로벌화로 등장한 지식사회에서는 기존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 원리(지식 자원의 무한성, 수확 체증의 원리 등)들이 나타나고 있음
- (분석 수단의 발전) 컴퓨터의 처리 능력 향상, 생물학의 진보 등으로 경제 분석을 위한 새로운 방법과 수단의 채택이 가능해짐

- 새로운 분석 방법의 유형

- (인성론적 방법) 기본적인 경제 분석 대상인 인간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심리경제학, 윤리경제학 등이 있음
- (생물학적 방법) 경제 구조와 그 구성원이 생물체와 같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견해를 기반으로 하며, 진화경제학이 대표적임
- (컴퓨터 의존적 방법) 컴퓨터를 이용해 현실 경제와 유사한 모형의 창조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인공지능 경제학, 실험경제학 등이 있음

- (시사점) 경제 현상 분석에 대한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21세기 지식사회에 부합하는 기업 경영 전략 및 정부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함

21세기 새로운 경제 현상 분석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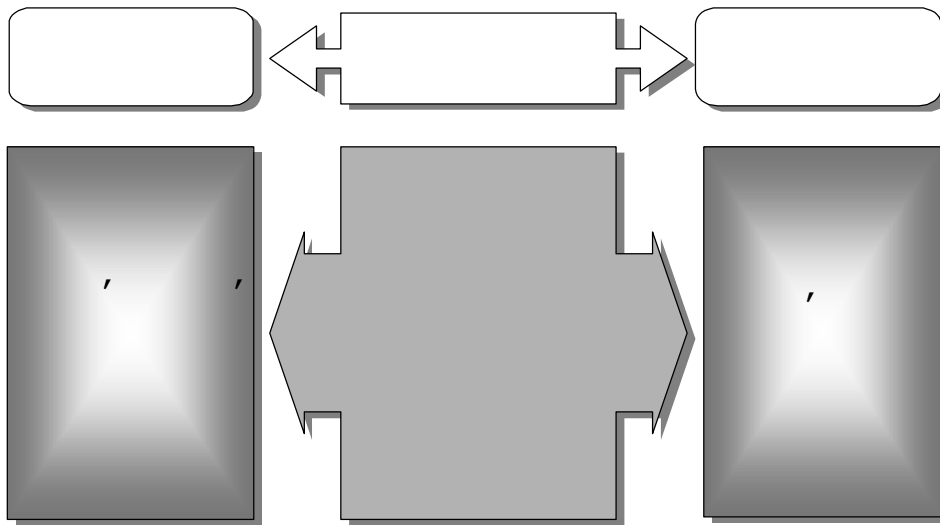
이번 호부터 21세기에 주목받을 새로운 경제 분석 방법론의 동향을 살펴보고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 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지식 경제 분석 방법론' 시리즈를 연재함. 이 글은 그 첫 번째로 새로운 방법론의 대두 배경과 유형 분류, 그리고 이의 시사점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임

□ 새로운 방법의 대두 배경

- 첫째, 기존의 경제 분석 방법이 미래 예측뿐만 아니라 현상 설명에서도 한계를 보이면서 경제 현상 분석 및 정책 처방 관점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현실 세계는 세계화, 정보화 등의 확산으로 점점 복잡해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법은 여전히 모형의 단순화를 강조한 나머지, 현상 설명력과 미래 예측력이 약해지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이미 1970년대부터 나타났음. 한 예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의 경우, 그동안 거시경제 정책 처방의 기본 원리로서 활용되는 양자간의 상충 관계를 나타내던 필립스 곡선 가설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적용이 더 이상 어려워짐
- 둘째,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제 현상의 발현이 새로운 분석 방법의 등장으로 이어짐
 -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 세계를 토대로 체계화된 기존의 방법이 산업사회 분석까지는 유용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 혁신과 경제 구조의 글로벌화 현상의 확산으로 등장한 지식사회에서는 기존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 원리들이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어 경제 분석에 있어 기본적인 개념들인 핵심 생산 요소, 생산 법칙, 경쟁 원리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어, 필연적으로 새로운 분석 방법의 출현을 가져옴(<그림> 참조)
- 셋째, 분석 방법에 이용되는 수단의 발전이 새로운 방법의 출현을 가속화시킴
 - 컴퓨터 계산 처리 능력의 놀라운 향상, 유전학과 같은 생물학에서의 진보 등은 경제 분석 방법의 대상 영역을 확장시킬 정도의 영향을 미침

-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디지털 컴퓨터의 발달은 시뮬레이션에 이용되는 변수 범위 확대와, 비선형의 경우와 같은 보다 복잡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선형 모형으로의 단순화에 주력하였던 기존의 방법론을 대체할 가능성을 제공함

< 기존 방법과 새로운 방법의 분석 대상 비교 >



□ 새로운 분석 방법의 유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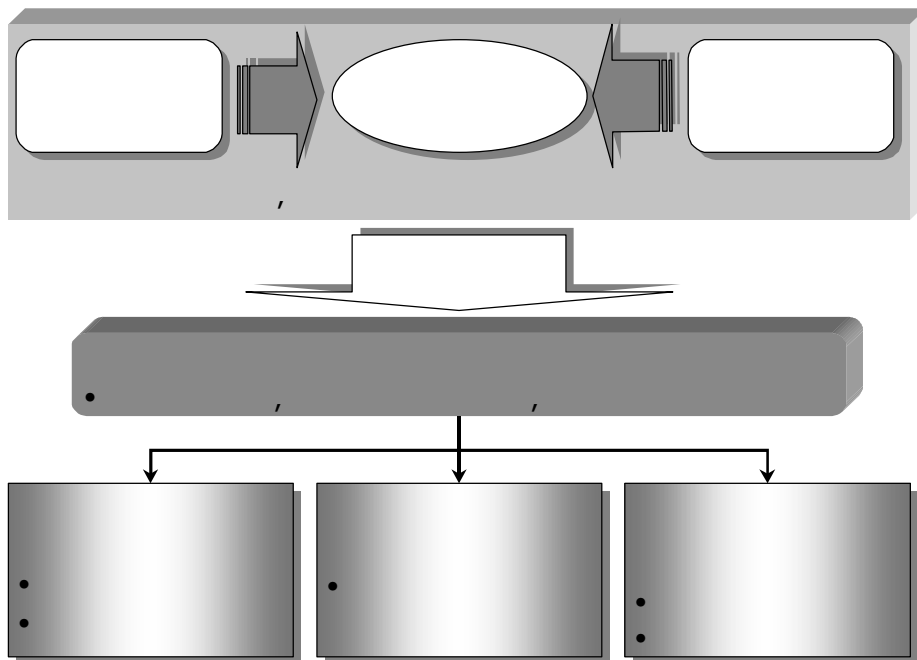
- (인성론적 방법) 경제 분석 대상으로서 새로운 인간형을 상정함
 - 기존 방법이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경제 분석 대상에 있어 기본 단위인 인간에 대한 개념을 ‘언제나 합리적’이라고 잘못 설정한 데 있는 것으로 파악함
 - 따라서 경제 행위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인간이 항상 합리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현실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그 심리 상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생겼으며, 심리경제학, 윤리경제학 등이 이에 해당함
- (생물학적 방법) 새로운 분석 대상으로서 조직 혹은 시스템을 중요시함
 - 정보화, 세계화 등에 따르는 경제 현실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단순한 인과관계에 집착하는 선형 원리에 입각한 기존의 경제 분석 방법이 경제 현상 파악에서 갖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짐

1) 이러한 분류는 필자의 자의적인 분류이며, 방법론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함

지식 경제 분석 방법론

- 이는 구성 인자간에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는 생물체처럼 경제 구조 자체와 각 경제 변수간의 연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견해를 기반으로 하며, 대표적인 방법론이 진화경제학임
 - 예를 들면 한 나라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기업 내부 조직의 특성, 기업간 관계, 정부 정책 등 국가혁신시스템²⁾을 중시하는 견해가 여기에 해당함
- (컴퓨터 의존적 방법) 경제 분석 수단으로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함
-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컴퓨터의 능력에 의존하여 기존 경제 분석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 즉 컴퓨터를 통해 현실 경제에 근사하는 모형의 인위적인 창조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경제학, 실험경제학 등이 있음
 - 예를 들면 컴퓨터로 구성한 화폐시장 모형에서 보다 현실에 맞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통화정책의 효과를 예측하는 경우임
- 이러한 분석 방법들은 결국 합리적 선택, 자원의 유한성, 시공간의 제약 등 기존 방법의 주요 가정을 수정 혹은 재검토하는 것을 통해 성립하는 것임

< 신경제 분석 방법의 등장 >



2) 국가혁신시스템이란, 특정 국가 기업들의 혁신 능력을 결정하는 상호 연관된 제도들의 집합임

□ 시사점

- 경제 현상의 분석과 이해에 있어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됨
 - 기존 방법의 이론적 기반으로서 단순 인과관계에 의한 선형 원리가 갖는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경제 현상의 복잡성을 인정하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됨
 - 즉 경제 구조 내부의 시스템이 경제 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새로운 방법들의 공통적인 인식임
 -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경제 현상들을 능동적으로 수용·적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함

- (기업) 우선, 경영 전략 수립이나 기업 행위에 대한 분석에 있어 새로운 경제 원리의 이해와 적응이 필요함
 - 생산, 마케팅, 조직 관리 등에 있어서 종전과는 다르게 수확체증의 생산 법칙, 비합리적인 소비자 구매 패턴, 유기적이고 복잡한 조직의 특성 등이 나타나므로, 이를 감안한 새로운 생산, 판매, 조직 관리 전략이 필요함
 - 또한 기업의 형성, 성장, 쇠퇴 등과 관련하여, 이제까지의 기업은 기술과 비용구조를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형성된 최적의 형태였으나, 이제는 모르는 기술과 비용구조를 찾는 과정 중에 시장에서 살아남은 결과이며, 따라서 기업이 항상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³⁾에 의거한 기업 분석이 필요함

- (정부) 정책 수립에 있어서 디지털 경제 시대와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 처방으로의 발전이 필요함
 - 21세기 지식사회의 생산, 소비, 유통 등 제반 경제 현상이 현재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석 방법의 도입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 처방이 제시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인터넷 상거래나 컴퓨터를 이용한 선물 거래 등의 경제 현상에 대해서, 기존의 경쟁 정책이나 조세 정책으로는 효과를 제대로 얻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정책 수단이 강구되어야 함
 - 특히 기술혁신이 개별 기업의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경쟁 기업과의 관계, 각종 제도 등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R&D 지원 정책 역시 국가적 혁신 체제의 관점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음

■ 박용선 주임연구원 yskwak@hri.co.kr ☎724-4058

3) 홍기현·이근, 「경쟁, 기업조직 및 기술혁신」, 1998.9.